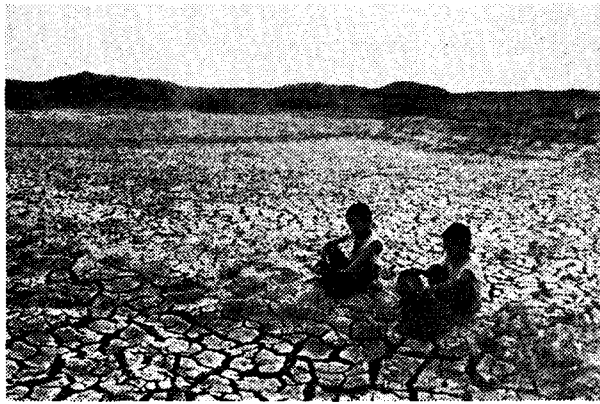


“병든地球!”, “「우리의 집」을 지키자”

편집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이렇게 메말른 지구를 만들 것이다〉

貧國도 富國도, 옛 植民地도 그 宗主國도, 政府代表도 비정부조직(NGO)의 활동가도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6월 3일~14일까지 열이틀동안의 리우회의(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에서는 온난화에 대한 不安, 사막화와 산림벌채에 따른 國土의 황폐등 「잇슈」를 놓고 “富國들만의 支配의 시

환경대책 잘돼야 生活도 向上

鄭元植 국무총리(당시)

한국은 그동안 공업화의 과정에서 양적인 성장과 팽창의 성장방식을 추구해 왔던게 사실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경제 성장 욕구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전을 위해 선진국들처럼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이러한 경험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원조의 측면에서 또는 개발지향적 정책수행의 측면에서 모두 교훈적인 자료가 되리라고 믿는다.

한국은 생활의 질적인 향상과 환경대책의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리우회의를 계기로 「국가환경현장」을 제정, 선포하여 한국정부가 나아갈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든지 1993년 8월에 열리기로 돼있는 대전 EXPO는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향의

도전”을 주제로 해서 계획되는 등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南北韓의 분단으로 지난 40여년간 인적이 끊긴 길이 258km, 폭 4km의 韓半島 비무장지대는 溫帶生物相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특수지역으로서 南과 北이 공동으로 UN기구와 협력, 이 지역의 생태계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리우精神 관철에 최선을

미국 : 부쉬대통령

온난화 방지협약에서 온실화가스 감축時限을 못박지 말고 내년 1월 1일이전 안으로 별도의 화합을 갖고 논의해 결정하자.

생물다양화 협약의 정신과 내용에는 전폭적인 찬의를 보내지만 미국의 지적(知的) 소유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

한다.

이제까지 리우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 인류가 나아갈 方向을 도출해 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 세대의 오늘날의 행동이 후세대들에게 실망적인 역사적평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앞으로 온실화가스 放出문제에 대해서는 전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특히 선진공업국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세계기술동반회의 개최하자

英國 : 메이저首相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다윈 이니셔티브」(Darwin Initiative)와 개도국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세계기술 동반자 회의 개최를 제의한다.

이를 통해 영국의 과학 및 경제능력을

인픽에서 한결같이 地球환경汚染경고

제공

대는 끝났다”에 맞장구를 치듯 앞으로의 “원조宣言”이 나오는 등 지구환경 파괴에 대한 공동방위적 인식을 같이 하는 분위기였다.

열이틀동안 120여개국 頂上들이 참석하는 등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모아본다. <世>



<정적이 감도는 북극권의 森林지대, 모존에 힘써야 한다>

총동원, 천연자원에 대한 국제적 연구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의 기후변화와 관련, 개도국들이 영국의 기업들과 동반자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분야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영국은 이번 회의중에 채택될 Agenda21의 실제 이행과정에서 非政府 민간 환경운동기구(NGO)의 역할을 점점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내년 6월 영국에서 세계 모든 NGO단체들이 참가하는 「글러벌 포럼」을 개최할 것이다.

선진국이 특별한 책임져야

독일 : 콜 首相

선진공업국에는 특별한 책임이 지워진다.

정부개발원조(ODA)자금을 내는데

GNP의 0.7%선을 담당할 작정을 하고 있으나 동시에 독일의 이웃 동유럽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독일은 이제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90억마르크(약 4조8천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채무경감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경제성장만이 貧困퇴치의 길

스웨덴 : 빌트 首相

20년전의 스톡홀름회의(UN인간환경회의)이래 우리들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왔다.

20년전에는 환경과 개발은 상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는 경제개발이 환경파괴의 원인이지만 빈곤퇴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누구

도 부인 못할 것이므로 그 조화의 길을 연구하는데 모든 정성을 쏟아야 한다.

지구망치는 원흉 「아메리칸·드림」

파오로 소렐

《이태리의 건축가. 건축학에 생태학을 접목시킨 아코로지(Architect-Ecology)의 창시자. 미국 아리조나州에 건설중인 「아코스테이」라는 자연공생도시의 설계자로 유명》

이렇게 지구환경을 악화시킨 것은 「아메리칸·드림」이다. 큰 집, 넓은 뜰, 한집 두대의 자동차, 이런 철없는 생활양식을 전인류가 요구한다면 “地球가 열개 있어도…” 모자랄 판이다.

세계도처에 인간욕망의 대표적 상징인 엄청난 도시가 확장되고 새로 만들어 지고 있다.

도시는 그 자체가 두뇌조직처럼, 반도 체침처럼 유기적으로 고밀도화되도록

성되어 바야흐로 사람들의 행동반경과 소비형태가 축소되는 도시기능의 개발이 절실한 때이다.

海水面 상승으로 섬이 없어진다

말디브(Maldive) :
가움 대통령

1천9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몰디브는 국의 평균 해발높이는 2m. 만일 다음 세기말까지 해수면이 1m 올라가면 작은 섬 대부분이 인도양 속으로 잠겨버리고 말 것이다.

벌써 수몰의 위험성이 큰 네개 섬에서 주민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인구 22만명의 작은 나라로서 그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리우회의가 섬나라에게는 생존을 건 최후의 찬스이다. 국제적인 원조를 기대하고 싶다.

오랜 지배밑에 파괴진행 사막화 막아야

나미비아(아프리카) :
누제마 대통령

나미비아는 겨우 1990년 3월에 독립. 그동안 장기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항한 전쟁과 빈곤으로 환경파괴가 가속화됐다.

사헬(Sahel/ 사하라사막의 남쪽 녹지대 벨트 세네갈에서 차까지의 광대한 지역) 지역의 사막화와 삼림파괴는 250만 헥타에 이르며 경제손실은年間 260억 달러로 추산된다.

물부족, 토양염화, 8할 인구의 빈곤등을 막기 위해 사막화 규제조약이 긴급히 체결돼야 한다.

지구환경보수에 貧國·富國

아들을 어떤 환경에서 키울 것인가

펠레

《왕년의 세계적 축구선수. 현재는 브라질의 UN친선대사》

자기 자손이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이 아닌가. 환경보호에 여러말이 필요없다.

자기 자식을 어떤 환경에서 키워야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해답은 명확해진다.

구하고 있다.

藥草, 染料, 食料등이 얻어지는 有用한 나무를 열대림을 벌채하고 난 곳에 어떻게 잘 植栽해서 자연을 회복시키는 연구인 것이다.

아마존 유역의 인디오가 600여종의 식물을 이용하고 있는데서 배운 바가 큰데 앞으로 이런 지식의 발굴, 보존이 급선무이다.

탐욕버리는 정신적 운동을

인도 : 라오 首相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듯이 우리들 세상은 한사람 한사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필요성을 충족시켜줄 만한 열개로 되어 있지만 탐욕을 모두 채워줄 만큼의 내성(耐性)은 없다.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결코 남북문제(빈국·부국문제)가 아니다. 南도 北도 하나의 문제에 대해 다른 측면을 대처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 뿐이다.

「자연회복의 生態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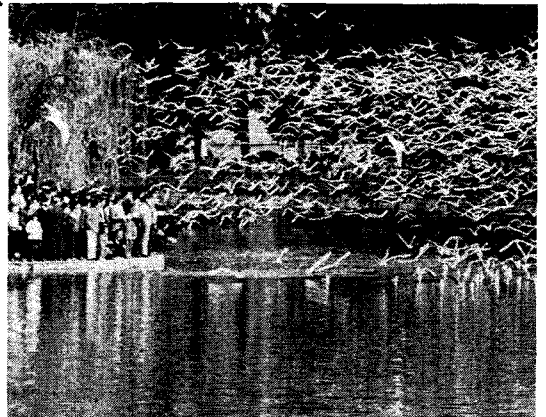
존 아렌

《미국 아리조나주 미니地球計劃 「바이오스 웨어II(Bio's Fair II)의 창설자》

지구환경의 보호가 아니라 「地球環境의 回復」을 논의할 때이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自然回復」을 위한 生態學이다.

바이오스 웨어II 계획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연

韓半島의 비무장 지대는 온대 생물상(溫帶生物相)이 자연그대로 보전되어 있다.



옛 植民地·宗主國 따로 없다.

「발칸」의 危機를 救하라

슬로베니아 :
덜노썬크 首相

「슬로베니아」는 전의 유고슬로비아로서 UN에 갓 加入한 신생국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女子, 어린이를 가리지 않는 살육장화하고 있고 목숨을 건졌다 해도 난민이 돼버린다.

발칸에서의 전쟁, 폭력, 최대의 환경과 괴를 저서켜줄 것을 호소한다.

거국적인 나무심기 운동을

아이슬랜드 :
훔보가드칠 大統領

거국적인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 年間 400여만 그루, 인구 1인당 16그루 이상 식을 심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녹색의 섬」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森林 파괴의 해독 재인식

태국 : 추라폰王女

태국은 '88년에 대홍수를 만났는데 이것은 그동안 숲의 남벌(濫伐)에 의한 자연재해로서 자업자득이었다.

나는 벌채의 금지, 나무심기 필요성을 호소해 왔으며 태국이 동남아에서 최초의 벌채금지국이 된 연유이다.

내자신 타이 남부에서 산림부활의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데 벌채금지 조치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심은 나무가 크려면 20년은 걸리고 벌채한 곳의 토양의 침식은 심각하며 하천이나 운하의 土砂의 퇴적도 큰 문제이다.

나라마다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이 있으므로 딴 나라에 벌채금지를 요구하려 하지는 않겠으나 이것이 환경악화의 큰 원인임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환경 채무를 갚아야

南北韓이 공동으로 UN기구와 협력 이 지역의 생태계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 한다.(18면 참조)

쿠바 : 카스트로 大統領

선진국은 환경채무를 갚아야 한다. 선진공업국은 그동안 자원독점, 기술독점 등으로 지구환경 파괴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지구적 보상의무를 져야 한다.

人間은 地上生物의 一員일 따름

다라이·라마

《티베트의 종교지도자, 노벨평화상 받음》 세계 각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지구서미트를 열고 있는 일야야말로 어디에 살든 지구라는 아름다운 둥근 박당 머리 위에 함께 살고 있는 「人間家族」이라는 증거이다. 동시에 이제 인류도 지구 전체의 문제를 생각할만큼 성숙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인간가족이 이제까지의 낭비벽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환경과 복지의 파괴뿐이다. 낭비를 억제하려면 행동양식의 변화뿐이 아니라 인간이 지구상 생물의 一員일 따름이라는 기본적인 관념을 되돌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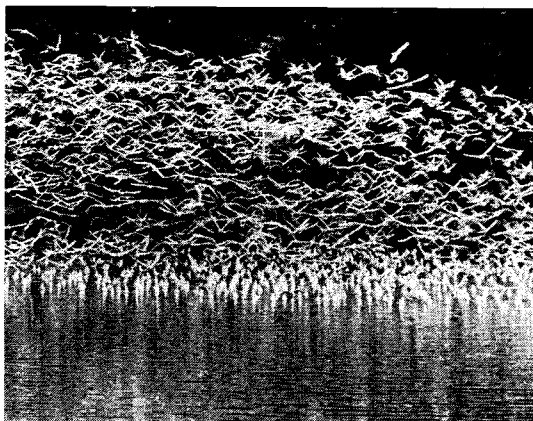
리우회의가 성과없이 끝나다해도 이번에 지구적 위기를 확산시킨 역할은 크다고 본다.

코카인 재배가 환경파괴 불러

페루 : 후지모리 大統領

페루는 천연자원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이다. 가난한 나라가 아니며 가난하게 돼버린 나라이다.

마약원료인 코카인 재배에 따라 환경 파괴가 진행되었고 아울러 코카인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화학약품을 사용해 또 환경파괴를 가중시킨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2000년이라는 장래의 문제가 아니고 페루에서는 당장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선진국이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環境革命」 필요한때

레스타·브라운

《미국 월드 워치 연구소장. 여러해에 걸쳐 지구환경의 위기를 호소해온 선각자》

세계적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변혁을 도모하는 가운데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생활양식의 변화와 가치관의 대전환

이 요구되는 환경혁명을 지향해 나가야 할 때이다.

「리싸이클(Re-Cycle)정신」을 확립하고 쓰고 버리는 소비지향적 사회구조의 변환을 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구증가의 억제와 에너지문제의 전환없이 환경혁명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産業革命이 化石연료의 의존에서 비롯되었듯이 환경혁명은 再生가능 에너지의 전환에 의해 성취되어야만 할 것이다.

환경혁명에 실패한다면 인류의 후손은 살아남을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인류는 어떻게 환경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나 하는 공부를 이제 겨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도전해야 할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억제이다.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승용차를 몰고 「헬스클럽」에 드

나들며 운동기구를 써 몸을 단련하고 돈 운물 샤워로 에너지를 쓰고는 또 승용차로 집에 돌아오는가? 자기는 건강유지가 그럴지력 되는지 모르지만 승용차에 의한 환경파괴, 샤워에 의한 에너지 낭비 등으로 환경의 불건강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더 많이 자전거를 타고 한바가지의 미지근한 물로 몸의 땀만 닦는 정신자세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開發」은 비현실적

데이비드·스즈끼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교수. TV의 자연관계 프로그램 제작자도 겸한 저명한 환경보호운동가》

남극상공 「오존」층 감소현상 현저

작년에 오존층 구멍 한때 1천700만Km²까지도

남극대륙 상공의 오존(Ozone)층 감소현상은 작년에 일어난 같은 현상보다도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로라도주에 있는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e Administration : NOAA)에 근무하는 과학자 올트만스(Samuel Oltmans)와 호프트만(David Hoftmann)은 지난주(92. 9. 13~19경)의 남극상공 오존층 농도 기록치는 작년의 동기에 비해 15%나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오존층의 농도는 1987년과 1991년에 급강하 했었다. 호프트만은 “오존층이

올해 9월에 들어서 이전에 없던 낮은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1991년 보다 농도 강하현상이 일찍 발생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강력한 자외선을 걸러서 생물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기능을 하고 있다.

오존층의 농도가 희박해지는 현상(thinning)은 대개 남극에도 찾아드는 봄철에 관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학자들은 이 희박현상은 남극의 대기단(大氣團)이 계절적인 대류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때 이른바 소용돌이(Vortex)가 발생함으로써 그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현

상으로 믿고 있다.

이 소용돌이는 남극에 초봄(9월) 찾아들면 강렬해진 태양광이 우주적 화학작용(인공적 화학작용의 대칭)을 일으켜 대기와 오존층을 섞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런 화학적 혼합작용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연쇄적 화학반사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올트만스와 호프트만은 대기고도 애드벌룬에 의한 측정에서 지난 9월 14일에 오존(價)가 170돔슨단위(Dobson Units)를 나타냈는데 이 측정치는 작년 9월 12일의 200DU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수치이다.

「돔슨」단위는 성층권 위쪽에서 大氣

인류는 3천만종에 이르는 동물의 한 종에 불과하다. 물, 공기, 토양, 생물의 다양성 등 어느 하나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없다.

年間 5만종이나 되는 동식물을 절멸(絶滅)의 위기에 몰아넣으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貧困이아말로 환경파괴의 최대

年間 5만종의 動·植物, 絶滅의 위기에

의 원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 11억 인구가 지구상 富의 82%를 독점하고 그밖에 韓·台 등 중진국 10억 인구가 12%, 나머지 貧國의 34억 인구가 겨우 6%의 富에 매달려 있다.

이런 사실을 직시한다면 이른바 「지

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같은 만사태평한 말로 때우고 있을 때가 못된다.

이 有限한 地球에서 무한한 成長을 추구하여 대기, 물, 토양, 자원의 소모를 늦추지 않는 경제구조 또는 경제체제가 지속되는 한 地球는 파멸을 향한 행진을 계속할 뿐이다.

자기의 정치생명, 자기의 선거구역의 일이나 골몰하는 정치가에 地球의 장래를 맡길 수는 없다.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 미래사회를 생각해야 한다.

시계의 바늘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구에게 가해지고 있는 압박을 조금씩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일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지 않은가.



구멍뚫린 오존층

지난 9월 14일 지구남반구 상공에서 촬영한 적외선사진. 검은색 부분은 오존량이 적은 곳, 흰색부분은 많은 곳을 나타낸다. 美해양대기국(NOAA)은 지난 2년간의 화산폭발과 열화불화탄소(CFC) 사용량의 증가로 오존층이 심각하게 파괴됐다고 밝혔다.

오존층 구멍 發生 남극에서 4년 잇달아

의 한 층을 형성하고 있는 오존층의 일정부분에 대해 그 전량을 측정하는 기준치이다.

미국 해양대기국은 이번 측정치는 작년에 지구상에서 일어난 인공적 화학작용과 오염물질 배출 및 이황산가스(Sulphur Dioxide/ 이산화황)의 대기권 방출등의 원인에 의해 오존층이 극도로 얇아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난 2년 동안에 필리핀의 「피나투보」(Pinatubo) 火山, 칠레의 「허드슨」(Hudson) 火山의 폭발등이 오존층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올트만은 남극상공의 오존층은 7~13

마일 고도에 걸쳐있으며 이 대기층은 火山 분출물질이 머무는 권역이기도 하다.

또한 인공화학적 작용의 주범은 후레온가스(CFCs ; Chlorofluorocarbons/ 염화불화탄소)이며 이 가스는 오존층 농도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데 제품 생산공정과 냉동기에 쓰이는 냉매(冷媒)이다.

태양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을 생물에 과다하게 쬐이면 생육에 큰 손상을 받으며 또한 피부암을 일으킨다.(AP)

세계기상기관(WMO)은 남극상공의 오존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난 9월 16일 발표했다.

이 발표와 더불어 남극에 있는 선진국 기지들은 그동안 관측결과 이것은 지난 4년동안 잇달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확인했다.

오존층 구멍은 계속 커져서 10월의 최성기(最盛期)에 이르면 그동안 최대 범위를 기록한 작년과 비슷하게 확대되리라 보고 있다.

작년에는 10월초에 오존층 구멍의 면적이 약 1천700만 평방Km(우리나라 총면적의 77배 가량)으로까지 크게 확대된 바 있다.